2026 제주어 포럼 '눌'
제주어 노래 가사집



주최·주관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인의 삶과 정서를 담은 제주어,
한글날, '모다들엉' 제주어를 노래하다

제주어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고유한 숨결이 녹아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다양한 주제로 제주어 포럼 '눌'을 개최하며 제주어 관련 기관·단체, 연구자·활동가들과 함께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2026년 한글날을 맞아 열리는 <제주어 포럼 '눌'-제주어를 노래하다>는 기존의 학술적 논의를 넘어 '음악'이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접목한 자리입니다. 제주어가 단순한 보존 대상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즐기는 삶의 언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제주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다들엉(모여들어)' 아름다운 노랫말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행사 취지에 맞춰 공연의 감동을 더하고 제주어 노랫말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제주어 노래 가사집>을 발간합니다. 귀로 듣는 노래를 눈으로 함께 읽으며, 노랫말에 담긴 제주의 정서와 어휘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는 출연진이 들려주는 현장 공연 순서대로 수록했습니다. 또한, 각 노래마다 제주어 노랫말을 먼저 배치하고, 그 옆에 표준어 대역 가사를 함께 실었습니다. 출연진의 공연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제주어 고유의 말맛을 느끼는 동시에, 전체적인 의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가사 표기 과정에서는 원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출연진명을 제외한 제주어 창작곡 및 제주어 대역 가사는 공연 출연진의 동의를 얻어 「한글 맞춤법」과 제주어 표기 기준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제주어 노래에는 제주 사람들의 일상과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합창부터 성악, 민요, 대중음악, 밴드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색깔로 재해석된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집 제작과 노랫말 정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노래하며 제주어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 10. 9.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차례

제주어가온누리합창단

훈민정음 서문가 7
아름다운 나라 7
나는 반딧불 8

제주어 테너 강창오

오 솔레 미오(O Sole Mio, 오 나의 태양) 9
내가 만일 11

양정원

게메마씸 13
비야 비야 오지 말라 14
삼춘 15

혼디놀레

ᄋᆞ망진 똘내미 17
오름 오르게 18
혼디 놀레 20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

좋아마시 23
ᄀᆞ찌 글라 24

사우스카니발(South Carnival)

문딱 돌으라 25
동네 심방 27
이어도 사나 28
서우젯소리 30
느영 나영 30

가사집을 보다가 궁금한 제주어 어휘가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제주어 웹사전
<제주어왓(www.jeju.go.kr/jejueo)>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어가온누리합창단



제주어가온누리합창단은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제주어를 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하는 단체다. 2025년 7월, 10명의 중창단으로 출발해, 제주어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둘 뜻을 모으며 2026년 현재 40명의 단원이 함께 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했다.

기존 곡을 제주어로 번안하고, 가온누리만의 창작곡을 선보이며 제주의 전통문화와 삶, 자연과 환경, 평화와 공존, 나아가 제주어의 미래를 노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초청 공연을 펼쳐 왔고, 무대의 성격과 취지에 맞춘 세심한 기획으로 깊은 감동을 전하며 제주어와 제주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제주어가온누리합창단은 제주어가 한 세대의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제주인의 마음을 담아 노래로 제주어를 전하고 이어가는 문화공동체가 되고자 한다.

훈민정음 서문가 (원작 세종대왕 / 작곡 류동일)

제주어

나랏말씀이 중국광 ᄐᆞ난
한자영은 서로 통ᄒᆞ지 아니ᄒᆞ난
영ᄒᆞᆫ 따문에 두린 백성이
말ᄒᆞ고정 ᄒᆞᆫ 게 잇어도
마침내 지 뜻을 붉게 피지 못ᄒᆞᆯ 사름이 하 부난
나 이덜 울엉 가여이 네경
새로 스물ᄋᆞ 둡 제를 멘들암시난
사름마다 문딱 쉽게 익형
날로 쓰는 디 펜안케 ᄒᆞ고정 ᄒᆞᆯ 따름이니라

표준어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밝게 펴지 못할 이가 많으니
내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모두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는 반딧불 (작사·작곡 정중식)

제주어	표준어
나는 나가 빗나는 벨인 줄 알앗수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혼 번도 의심혼 적 읏엇수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랏수다 난 나가 버렝이라는 걸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경헤도 관찮아 난 눈부실 거난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털어진 벨인 줄 알앗수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족은 벨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랏수다 난 나가 불란지라는 걸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경헤도 관찮아 난 빗날 거난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나가 빗나는 벨인 줄 알앗수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혼 번도 의심혼 적 읏엇수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랏수다 난 나가 버렝이라는 걸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경헤도 관찮아 난 눈부실 거난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혼참 동안 촞아난 나 손콥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더레 올라간 초싱돌이 뒈 불엇주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 버렸지
줏엉 담지도 못ᄒᆞ게 너미 멀리 갓주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게가 저디 걸어놔샤누게가 저디 걸어놔샤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제주레 놀아온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에 벨덜이 불란지가 뒈 불엇주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 버렸지
나가 늘 만난 거추룩 똑기 입낙혼 거추룩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또시 태어낫주 나는 또시 태어낫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제주어	표준어
나는 나가 빗나는 벨인 줄 알앗수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혼 번도 의심혼 적 읏엇수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랏수다 난 나가 버렝이라는 걸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경헤도 관찮아 난 눈부실 거난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털어진 벨인 줄 알앗수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족은 벨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랏수다 난 나가 불란지라는 걸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경헤도 관찮아 난 빗날 거난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오 솔레 미오(O Sole Mio, 오 나의 태양) (이탈리아 나폴리 민요)

제주어	표준어
아! 묽은 벳살 느 춤 곱들락ᄒᆞ다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비ᄇᆞ롬 그치난 느 하영 빗남저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건드렁혼 ᄇᆞ롬 솔솔 불어오민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면
하늘의 붉은 벳은 비춰졈저	하늘의 밝은 해는 비치인다
나– 몸엔 ᄉᆞ랑ᄒᆞ는 나 벳님만	나의 몸에는 사랑스런 나의 햇님뿐
비춰졈저	비치인다
아! 나의 나의 벳님!	오! 나의 나의 햇님!
빈찍ᄒᆞ게 비춰졈저	찬란하게 비치인다

강창오



제주어 테너 강창오는 제주대학교와 가톨릭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음악가다. 《Carmina Burana》, 《Te Deum》, 《Stabat Mater》, 《Coronation Mass》 등에서 독창자로 무대에 섰으며, 콘서트 오페라 《La Traviata》, 악극 《배비장전》 등에서 주역으로 활약했다. 도립제주교향악단, 불가리아 파자르지크 오케스트라, 대구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여수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제주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후학을 지도했으며, 한국합창연합회 제주도지회장과 제주도립예술단 상임단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아트콰이어 창단 지휘자, 제주생활음악인협회 창단 음악감독, 연동성당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제주어의 성악적 접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탈리아 칸초네(Canzone), 가곡, 대중가요 등의 제주어 번안 공연은 물론 단장으로 활동 중인 제주솔로이스츠를 통해 도내 최초로 제주어 가곡 콘서트도 개최해 오고 있다.

내가 만일 (작사·작곡 김범수)

제주어	표준어
나가 만약 하늘이라민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이녁 양지에 물들고정 헤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벌겅케 물든 ᄌᆞ냑 저 노을추룩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이녁 삐얌에 물들고정 헤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나가 만약 시인이라민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이녁 울엉 놀레ᄒᆞ커라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어멍 쿰에 엥긴 두린아이추룩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ᄒᆞ게 놀레ᄒᆞ고정 헤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시상에 그 무신거라도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이녁 울엉 뒈고정 헤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널추룩 우리 ᄒᆞᆫ디 이신 게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난 얼메나 지꺼짐산디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ᄉᆞ랑ᄒᆞ는 나의 사름아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이녁은 몰라	너는 아니
워- 영ᄒᆞᆫ 나의 ᄆᆞ심을	워- 이런 나의 마음을
나가 만약 구룸이라민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이녁 울엉 비가 뒈커라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ᄋᆞ름날에 쒜네기추룩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나 씨원ᄒᆞ게 ᄂᆞ리고정 헤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시상에 그 무신거라도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이녁 울엉 뒈고정 헤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널추룩 우리 ᄒᆞᆫ디 이신 게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난 얼메나 지꺼짐산디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ᄉᆞ랑ᄒᆞ는 나의 사름아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이녁은 몰라	너는 아니
워- 영ᄒᆞᆫ 나의 ᄆᆞ심을	워- 이런 나의 마음을
워- 영ᄒᆞᆫ 나의 ᄆᆞ심을	워- 이런 나의 마음을

양정원



양정원은 제주의 삶과 정서를 제주어로 노래하는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다.

<2026 제주어 포럼 '눌'-제주어를 노래하다>에서는 직접 작사·작곡한 《게메마씸》,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삼춘》 세 곡을 소개한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자식 걱정에 애태우는 어머니의 마음, 늘그막까지도 자식보다 앞서 몸을 놀리는 삼춘의 정겨운 모습 등 제주 사람들의 일상과 정(情)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곡들이다.

정겨운 제주어 가락 속에 담긴 가사의 뜻을 음미하며, 제주의 언어와 삶의 결을 한층 깊이 있게 느껴보기를 권한다.

게메마씸 (작사· 작곡: 양정원)

제주어	표준어
사름 사는 일이 어떵허난 이추룩도 버치카마씸	사람 사는 일이 어찌 이렇게도 힘들까요
살당 보민 살당 보민 살아진덴 골안게마는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살아진다고 말하더니만
먹엉 사는 일이 어떵허난 이추룩도 버치카마씸	먹고사는 일이 어찌 이렇게도 힘들까요
살암시민 살암시민 살아진덴 골안게마는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살아진다고 말하더니만
게메마씸 게메마씸 게메마씸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경헤도 어떵 살아봐사주마씸	그래도 어떻게 살아봐야죠
주왁주왁허멍 사나 ᄋᆞ구리질허멍 사나	주저주저하면서 사나 약은 체하면서 사나
이녁 난 팔제렌 허멍	내 타고난 팔자라고 하면서
어떵 어떵 살아덜 보곡	어떻게 어떻게 살아들 보고
용심나는 일 잇이민	화나는 일 있으면
바당더레 데껴 붑서	바다에다 던져 버리십시오
지꺼진 일 잇어가민	기쁜 일이 있으면
모다들엉 웃어덜 봅서	모여들어 웃어들 보십시오
게메마씸 게메마씸 게메마씸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경헤도 어떵 살아봐사주마씸	그래도 어떻게 살아봐야죠
게메마씸 게메마씸 게메마씸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경헤도 어떵 춤아가멍 살아 불게마씸	그래도 어떻게 참아가면서 살아 버려요
게메마씸 게메마씸 게메마씸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경헤도 어떵 웃어가멍 살아 불게마씸	그래도 어떻게 웃어가면서 살아 버려요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작사·작곡: 양정원)

제주어	표준어
비 왐저 날레 걷으라 비 왐저 날레 들이라	비 온다 곡식 걷어라 비 온다 곡식 들여라
우리 어멍 ᄌᆞ들암시난 혼저 걷으라	우리 어머니 걱정하시니 어서 걷어라
우리 아방은 궨당네집 잔치밧디 가곡	우리 아버지는 친척집 잔칫집에 가고
넉둥베기 놀멍 정신엇인 셍이여	윷 놀면서 정신없는 모양이다
비 오민 날레 걷읍센 골아 뒁 밧디 가신디	비 오면 곡식 걷으시라고 말해 두고 밭에 갔는데
술 혼 잔에 넉둥베기가 ᄌᆞ미난 셍이우다	술 한 잔에 윷놀이가 재미난 모양입니다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장통밧디 물골람저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옴팡진 밭에 물 고인다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영장밧디 물골람저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장지에 물 고인다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장통밧디 물골람저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옴팡진 밭에 물 고인다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영장밧디 물골람저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장지에 물 고인다
우리 아방은 궨당네집 잔치밧디 가곡	우리 아버지는 친척집 잔칫집에 가고
넉둥베기 놀멍 정신엇인 셍이여	윷 놀면서 정신없는 모양이다
비 오민 날레 걷읍센 골아 뒁 밧디 가신디	비 오면 곡식 걷으시라고 말해 두고 밭에 갔는데
술 혼 잔에 넉둥베기가 ᄌᆞ미난 셍이우다	술 한 잔에 윷놀이가 재미난 모양입니다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장통밧디 물골람저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옴팡진 밭에 물 고인다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영장밧디 물골람저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장지에 물 고인다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장통밧디 물골람저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옴팡진 밭에 물 고인다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영장밧디 물골람저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장지에 물 고인다

삼춘 (작사·작곡: 양정원)

제주어	표준어
삼춘 (무사) 삼춘 (무사)	삼춘 (왜) 삼춘 (왜)
삼춘 (무사게) 어디 감수꽈 (장에 감저)	삼춘 (왜) 어디 갑니까 (장에 간다)
아덜 메누리 손지덜 온덴 허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온다고 하니
궤기 사레 장에 감수꽈	고기 사러 장에 갑니까
삼춘 (무사) 삼춘 (무사)	삼춘 (왜) 삼춘 (왜)
아이고 삼춘게 (무사게) 어디 감수꽈	아이고 삼춘 (왜) 어디 갑니까
궨당네 식게칩이 가젠 허난	친척집 제삿집에 가려고 하니
제숙 사레 장에 감수꽈	제사용 고기 사러 장에 갑니까
고양 출려 아졍 장에 가는 삼춘	곱게 차려 가지고 장에 가는 삼춘
이제사 나이 들언 펜안헤사 헐 건디	이제야 나이 들어서 편안해야 할 건데
보지런히 나뎅겨사 살아진덴 허멍	부지런히 나다녀야 살 수 있다 하면서
돔박지름 고양 볼랑 장에 가는 삼춘	동백기름 곱게 바르고 장에 가는 삼춘
삼춘 (무사) 삼춘 (무사)	삼춘 (왜) 삼춘 (왜)
아이고 삼춘게 (아이고 무사게) 어디 감수꽈	아이고 삼춘 (아이고 왜) 어디 갑니까
이젤랑 아덜 메누리안티 시킵센 헤도	이제는 아들 며느리한테 시키시라 해도
죽기 전인 나가 헤사주 허는 삼춘	죽기 전에는 내가 해야지 하는 삼춘
고양 출려 아졍 장에 가는 삼춘	곱게 차려 가지고 장에 가는 삼춘
이제사 나이 들언 펜안헤사 헐 건디	이제야 나이 들어서 편안해야 할 건데
보지런히 나뎅겨사 살아진덴 허멍	부지런히 나다녀야 살 수 있다 하면서
돔박지름 고양 볼랑 장에 가는 삼춘	동백기름 곱게 바르고 장에 가는 삼춘
삼춘 (무사) 삼춘 (무사)	삼춘 (왜) 삼춘 (왜)
아이고 삼춘게 (아이고 무사게) 어디 감수꽈	아이고 삼춘 (아이고 왜) 어디 갑니까
이젤랑 아덜 메누리안티 시킵센 헤도	이제는 아들 며느리한테 시키시라 해도
죽기 전인 나가 헤사주 허는 삼춘	죽기 전에는 내가 해야지 하는 삼춘

혼디놀레



혼디놀레는 2020년 8월에 결성된 팀으로, 제주어와 제주를 담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초등교사들이다. 팀명 '혼디놀레'는 제주어로 '함께 노래 부르자'는 뜻을 담고 있으며, 신제주초 이경란 교사가 제주어 작사를, 중문초 공은주 교사가 작곡을 맡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제주 해녀 문화를 담은 뮤지컬《검은 인어공주》,《ᄋᆞᆫ망진 똘내미, 오름 오르게!》 등 4개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매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어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 원도심 문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노래를 통해 제주어와 제주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있다.

ᄋᆞᆫ망진 똘내미 (작사 이경란 / 작곡 공은주)

제주어	표준어
삼춘 삼춘 어디 감수과 ᄌᆞ끗디 검질메러 감저 멩심ᄒᆞ영 뎅겨옵서예 푸더지민 안 뒈니다예	삼춘 삼춘 어디 갑니까 근처에 김매러 간다 명심해서 다녀오십시오 넘어지면 안 됩니다
ᄋᆞᆫ망진 똘내미 어디 감시니 우리 어멍 부름씨 감수다 저 알동네 점방에 ᄂᆞ물이영 뀃ᄀᆞ루 사레 감수다	야무진 딸내미 어디 가니 우리 엄마 심부름 갑니다 저 아랫동네 가게에 나물이랑 깻가루 사러 갑니다
ᄒᆞ꼴락ᄒᆞᆫ 빙에기여신디 어느제 이추룩 ᄋᆞᆨ아시니 춤말로 ᄇᆞ랑진 아이여게	조그마한 병아리였는데 언제 이렇게 철들었니 정말로 바지런한 아이네
삼춘 삼춘 어디 감수과 ᄋᆞᆫ망진 똘내미 어디 감시니 오랜만이 봐지난 좋은게 빙섹이 웃이멍 살게마씸	삼춘 삼춘 어디 갑니까 야무진 딸내미 어디 가니 오랜만에 보게 되니 좋네 빙그레 웃으며 살아요
삼춘 삼춘 어디 감수과 바당에 물질ᄒᆞ레 감저 ᄯᆞᄠᆞᆺᄒᆞ게 입엉 갑서예 감기 멩심 물이 얼다예	삼춘 삼춘 어디 갑니까 바당에 물질하러 간다 따뜻하게 입고 가십시오 감기 조심 물이 찹니다
ᄋᆞᆫ망진 똘내미 어디 감시니 우리 할망 부름씨 감수다 저 웃동네 권당신디 식게 테물 테와 주레 감수다	야무진 딸내미 어디 가니 우리 할머니 심부름 갑니다 저 윗동네 친척한테 제지낸 음식 나눠 주러 갑니다
ᄒᆞ꼴락ᄒᆞᆫ 빙에기여신디 어느제 이추룩 ᄋᆞᆨ아시니 춤말로 ᄇᆞ랑진 아이여게	조그마한 병아리였는데 언제 이렇게 철들었니 정말 바지런한 아이네
삼춘 삼춘 어디 감수과 ᄋᆞᆫ망진 똘내미 어디 감시니 오랜만이 봐지난 좋은게 빙섹이 웃이멍 살게마씸	삼춘 삼춘 어디 갑니까 야무진 딸내미 어디 가니 오랜만에 보게 되니 좋네 빙그레 웃으며 살아요

오름 오르게 (작사 오민우 / 작곡 공은주)

제주어

푸른 ᄆᆞ루에 산도록ᄒᆞᆫ ᄇᆞ롬 맞으멍
느영 나영 ᄀᆞ치 손심엉 오름 오르게

오소록ᄒᆞᆫ 길 싱그러운 향기 느끼멍
느영 나영 ᄀᆞ치 손심엉 오름 오르게

와시냐 손 흔드는 억새와 인사하고 (와시냐)
ᄒᆞᆫ저 와 노래하는 동박새 반겨 주네 (ᄒᆞᆫ저 오라)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심엉 ᄀᆞ치 오르게 (오르게)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심엉 ᄀᆞ치 오르게 오름

밤하늘에 벨롱벨롱 벨 바라보멍
느영 나영 ᄀᆞ치 손심엉 오름 오르게

구불짝ᄒᆞᆫ 길 빙삭이 수다 떨면서
느영 나영 ᄀᆞ치 손심엉 오름 오르게

와시냐 춤을 추는 조릿대 인사ᄒᆞ고 (와시냐)
ᄒᆞᆫ저 와 노래하는 팔색조 반겨 주네 (ᄒᆞᆫ저 옵서예)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심엉 ᄀᆞ치 오르게 (오르게)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심엉 ᄀᆞ치 오르게 (오름)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심엉 ᄀᆞ치 오르게 (오르게)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심엉 ᄀᆞ치 오르게 (오름)

표준어

푸른 마루에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너랑 나랑 같이 손잡고 오름 오르자

구석지고 고요한 길 싱그러운 향기 느끼면서
너랑 나랑 같이 손잡고 오름 오르자

왔니 손 흔드는 억새와 인사하고 (왔니)
어서 와 노래하는 동박새 반겨 주네 (어서 와)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잡고 같이 오르자 (오르자)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잡고 같이 오르자 오름

밤하늘에 반짝반짝 별 바라보면서
너랑 나랑 같이 손잡고 오름 오르자

구불구불한 길 빙그레 수다 떨면서
너랑 나랑 같이 손잡고 오름 오르자

왔구나 춤을 추는 조릿대 인사하고 (왔구나)
어서 와 노래하는 팔색조 반겨 주네 (어서 오십시오)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잡고 같이 오르자 (오르자)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잡고 같이 오르자 (오름)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잡고 같이 오르자 (오르자)
라라랄라라 라라 라라랄라라 라라
손잡고 같이 오르자 (오름)

혼디 놀레 (작사 이경란 / 작곡 공은주)

제주어

혼디 놀레, 함께 노래
혼디 부르는 노래
혼디 놀레, 함께 노래
소리 모앙 불러 보게

혼디 놀레, 함께 노래
혼디 부르는 노래
혼디 놀레, 함께 노래
소리 모앙 불러 보게

혼차 ᄒᆞ민 웨롭주
혼디 ᄒᆞ민 심 나주
혼차여시민 멩글지 못헐 그 말덜

혼차 ᄒᆞ민 웨롭주
혼디 ᄒᆞ민 심 나주
혼차여시민 부르지 못헐 멜로디

느영 나영 혼디 멩근 놀레
이 행복을 놀레허게
혼디 놀레, 함께 노래
온 시상에 울려 퍼져

혼디 놀레, 함께 노래
ᄆᆞ음 열엉 노놔 보게
혼디 놀레, 함께 노래
느영 나영 ᄒᆞ나 뒈게

혼디 놀레, 함께 노래
ᄆᆞ음 열엉 노놔 보게
혼디 놀레, 함께 노래
느영 나영 ᄒᆞ나 뒈게

혼차 ᄒᆞ민 웨롭주
혼디 ᄒᆞ민 심 나주
혼차여시민 멩글지 못헐 그 말덜

혼차 ᄒᆞ민 웨롭주
혼디 ᄒᆞ민 심 나주
혼차여시민 부르지 못헐 멜로디

느영 나영 혼디 멩근 놀레
이 행복을 놀레허게
혼디 놀레, 함께 노래
온 시상에 울려 퍼져
느영 나의 목소리가
ᄒᆞ나로 번져가

표준어

함께 노래, 함께 노래
함께 부르는 노래
함께 노래, 함께 노래
소리 모아 불러 보자

함께 노래, 함께 노래
함께 부르는 노래
함께 노래, 함께 노래
소리 모아 불러 보자

혼자 하면 외롭지
함께 하면 힘 나지
혼자였으면 만들지 못할 그 말들

혼자 하면 외롭지
함께 하면 힘 나지
혼자였으면 부르지 못할 멜로디

너랑 내가 함께 만든 노래
이 행복을 노래하자
함께 노래, 함께 노래
온 세상에 울려 퍼져

함께 노래, 함께 노래
마음 열어 나눠보자
함께 노래, 함께 노래
너랑 내가 하나 되도록

함께 노래, 함께 노래
마음 열어 나눠 보자
함께 노래, 함께 노래
너랑 내가 하나 되게

혼자 하면 외롭지
함께하면 힘 나지
혼자라면 만들지 못할 그 말들

혼자 하면 외롭지
함께하면 힘 나지
혼자였으면 부르지 못할 멜로디

너랑 내가 함께 만든 노래
이 행복을 노래하자
함께 노래, 함께 노래
온 세상에 울려 퍼져
너랑 나의 목소리가
하나로 번져가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은 도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2011년에 창단되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의 작은 울림이 사람들의 마음에 평온을 주듯'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통해 감동을 전하고 있다.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축하 공연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2024년 국제환경포럼과 한·중 미래 발전 교류 주간 축하 공연을 선보여 극찬을 받았다. 2023년에는 전국장애인음악축전에 초청되어 연합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2022년 세계유산축전 폐막식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해 왔다.

현재 3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를 꾸준히 연구하며 제주를 대표하는 어린이합창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좋아마시 (작사 박정필 / 작곡 박주만)

제주어	표준어
언제 언제 왓수광	언제 언제 왔습니까
어제 왓수다	어제 왔습니다
어디 어디 감수광	어디 어디 갑니까
제주 감수다	제주 갑니다
바당도 푸르고 들도 푸르다	바다도 푸르고 들도 푸르다
좋아마시(씨) (좋아마시) 좋아마시(씨) (좋아마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주가 좋아마시(씨)	제주가 좋아요
철에 맞춘 ᄇᆞ름소리	철에 맞춘 바람소리
안녕허시우꽈	안녕하십니까
나영 느영 ᄀᆞ찌 글라	나랑 너랑 같이 가자
푸르롱헌 저 곳	푸르른 저 곳
ᄆᆞ심도 착허고	마음도 착하고
곱들락허우다	곱습니다
좋아마시(씨) (좋아마시) 좋아마시(씨) (좋아마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주가 좋아마시(씨)	제주가 좋아요
철에 맞춘 ᄇᆞ름소리	철에 맞춘 바람소리
안녕허시우꽈	안녕하십니까
나영 느영 ᄀᆞ찌 글라	나랑 너랑 같이 가자
푸르롱헌 저 곳	푸르른 저 곳
좋아마시(씨) (좋아마시) 좋아마시(씨) (좋아마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주가 좋아마시(씨)	제주가 좋아요

ᄀᆞ찌 글라 (작사·작곡: 박순동)

제주어	표준어
ᄀᆞ찌 글라 ᄀᆞ찌 가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느영 ᄀᆞ찌 글민 지꺼짐이 열 배여	너랑 같이 가면 기쁨이 열 배야
ᄀᆞ찌 글라 ᄀᆞ찌 가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느영 ᄀᆞ찌 글민 지꺼짐이 백 배여	너랑 같이 가면 기쁨이 백 배야
영도 곱닥헌 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이렇게 고운 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느영 나영 ᄀᆞ찌 글민	너랑 나랑 같이 가면
무신 걱정 싯나 하영 골민 준다니	무슨 걱정 있나 많이 말하면 잔소리
ᄀᆞ찌 글라 ᄀᆞ찌 가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느영 ᄀᆞ찌 글민 지꺼짐이 열 배여	너랑 같이 가면 기쁨이 열 배야
ᄀᆞ찌 글라 ᄀᆞ찌 가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느영 ᄀᆞ찌 글민 지꺼짐이 백 배여	너랑 같이 가면 기쁨이 백 배야
영도 곱닥헌 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이렇게 고운 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느영 나영 ᄀᆞ찌 글민	너랑 나랑 같이 가면
무신 걱정 싯나 하영 골민 준다니	무슨 걱정 있나 많이 말하면 잔소리
ᄀᆞ찌 글라 ᄀᆞ찌 가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느영 ᄀᆞ찌 글민 지꺼짐이 열 배여	너랑 같이 가면 기쁨이 열 배야
ᄀᆞ찌 글라 ᄀᆞ찌 가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느영 ᄀᆞ찌 글민 지꺼짐이 백 배여	너랑 같이 가면 기쁨이 백 배야

문딱 돌으라 (작사·작곡: 강경환)

제주어	표준어
두렁청이 어드레 가젠 헴시냐	어리둥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니
곱들락허게 출려입어근에 이드레 와근에	곱게 차려입고 이리로 와서
느영 나영 모다들어근에 터정 돌으게	너랑 나랑 모여들어 한꺼번에 달리자
빙삭허게 문딱 베리난 ᄇᆞ려감시녜	방긋하게 모두 보니 가까워지고 있잖니
돌으라 ᄌᆞ들지 말앙 돌으라 문딱 돌으라	달려라 걱정하지 말고 달려라 모두 달려라
돌으라 ᄌᆞ들지 말앙 돌으라 문딱 돌으라	달려라 걱정하지 말고 달려라 모두 달려라
용심내멍 도톼 보난 알아졈시냐	화내고 싸워 보니 알게 되었니
느영 나영 심벡헤 봐사 페들락헴시녜	너랑 나랑 겨뤄 봐야 파들짝하잖아
돈 한 추룩 뻴라진 추룩 오시록헌 추룩	돈 많은 척 바라진 척 고상한 척
경헤 봐사 피짝허난 얼렁 뎅기게	그래 봐야 삐치니 이리저리 돌아다니자
돌으라 ᄌᆞ들지 말앙 돌으라 문딱 돌으라	달려라 걱정하지 말고 달려라 모두 달려라
돌으라 ᄌᆞ들지 말앙 돌으라 문딱 돌으라	달려라 걱정하지 말고 달려라 모두 달려라
돌으라 ᄌᆞ들지 말앙 돌으라 문딱 돌으라	달려라 걱정하지 말고 달려라 모두 달려라
돌으라 ᄌᆞ들지 말앙 돌으라 문딱 돌으라	달려라 걱정하지 말고 달려라 모두 달려라
돌으라 ᄌᆞ들지 말앙 돌으라 문딱 돌으라	달려라 걱정하지 말고 달려라 모두 달려라
돌으라 ᄌᆞ들지 말앙 돌으라 문딱 돌으라	달려라 걱정하지 말고 달려라 모두 달려라

사우스카니발(South Carnival)



사우스카니발(South Carnival)은 제주어와 제주의 문화, 정서를 월드뮤직과 결합해 독창적인 음악으로 선보이는 에스닉(ethnic) 사운드 밴드다.

2008년 제주에서 결성되어 일본 후지 록 페스티벌과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국내외 주요 페스티벌에 참여했으며, KBS《유희열의 스케치북》과《올댓 뮤직》, EBS《스페이스 공감》등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제주 사람들의 삶과 자연, 역사에서 얻은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 사우스카니발만의 강렬한 에너지와 색깔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동네 심방 (작사 강경환 / 작곡 고수진)

제주어	표준어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매날 동네 심방들 내무령은에	맨날 동네 무당들 얕보고
놈의 동네 강 심방들 데령 오난	남의 동네 가서 무당들 데려오니까
거 보라게 뭐 벨거 이시냐	거 봐라 뭐 별거 있니
영허난 동네 심방이영 동네 정시영	이러니까 동네 무당이랑 동네 지관이랑
동네 각시는 내무리는 거 아니렌 허여낫저	동네 아내는 얕보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
어이고, 귓것덜	아이고, 귀신들
아멩 매날 골아 봐도 몰람저	아무리 맨날 말해 봐도 모르고 있네
맹심헤영들 챙기라	명심해서들 챙겨라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동네 정시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무당 동네 지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내무렴저	동네 무당 얕보고 있네
동네 정시 내무렴저	동네 지관 얕보고 있네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동네 심방 내무렴저	동네 무당 얕보고 있네
동네 정시 내무렴저	동네 지관 얕보고 있네
동네 각시 내무렴저	동네 아내 얕보고 있네

이어도 사나 (제주민요, 작곡 강경환)

제주어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넬 젓어라 (요 넬 젓어라 어드레 가코)
이어도 사나 요 넬 젓어라 (진도 앞 바당 한골로 가세)
요 넬 젓어라

혼착 손에 (혼착 손에) 테왁을 심엉 (테왁을 심엉)
혼착 손에 (혼착 손에) 빗창을 심엉 (빗창을 심엉)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넬 젓어라 (요 넬 젓어라)

우리 배는 (우리 배는) 솔나무 배난 (솔나무 배난)
솔락솔락 (솔락솔락) 잘도나 간다 (잘도나 간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넬 젓어라 (요 넬 젓어라)

물로야 뱅뱅 (물로야 뱅뱅) 돌아진 섬에 (돌아진 섬에)
우리 좀수 (우리 좀수) 물질을 허멍 (물질을 허멍)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넬 젓어라 (요 넬 젓어라)

우리 어멍 (우리 어멍) 날 날 적에는 (날 날 적에는)
무신 날에 (무신 날에) 날 낳아신가 (날 낳아신가)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넬 젓어라 (요 넬 젓어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넬 젓어라 (요 넬 젓어라)

표준어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노를 저어라 (요 노를 저어라 어디로 갈까)
이어도 사나 요 노를 저어라 (진도 앞 바다 큰물로 가세)
요 노를 저어라

한쪽 손에 (한쪽 손에) '테왁'을 잡고 ('테왁'을 잡고)
한쪽 손에 (한쪽 손에) '빗창'을 잡고 ('빗창'을 잡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노를 저어라 (요 노를 젓어라)

우리 배는 (우리 배는) 소나무 배니까 (소나무 배니까)
솔락솔락 (솔락솔락) 잘도나 간다 (잘도나 간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노를 젓어라 (요 노를 젓어라)

물로 뱅뱅 (물로 뱅뱅) 둘러싸인 섬에 (둘러싸인 섬에)
우리 해녀 (우리 해녀) 물질을 하면서 (물질을 하면서)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노를 젓어라 (요 노를 젓어라)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날 낳을 적에는 (날 낳을 적에는)
무슨 날에 (무슨 날에) 날 낳았을까 (날 낳았을까)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노를 젓어라 (요 노를 젓어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 노를 젓어라 (요 노를 젓어라)

서우젯소리 (작사·작곡: 강경환)

제주어	표준어
우리 어멍 나 날 적이	우리 어머니 나 낳을 적에
어느 바당 메역국 먹엉	어느 바다 미역국 먹고
놈 난 날에 나도 나시민	남 태어난 날에 나도 낳았으면
요런 물질 안 헤실 건디게	요런 물질 안 했을 건데
물로나 뱅뱅 돌아진 섬에	물로 뱅뱅 둘러싸인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허영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해서
혼 푼 두 푼 모아 놓은 금전	한 푼 두 푼 모아 놓은 금전
서방님 술값에 다 들어감저	서방님 술값에 다 들어가고 있네

느영 나영 (제주민요)

제주어	표준어
느영 나영 두리둥실 놀고요	너랑 나랑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서 운다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서 운다
호박은 늙으면 맛이라도 좋더만	호박은 늙으면 맛이라도 좋더만
사랑이 늙으면 뭣에다가 쓰느뇨	사랑이 늙으면 무엇에다가 쓰느냐
백록담 올라갈 땐 누이동생 하더니	백록담 올라갈 땐 누이동생 하더니
한라산 올라갈 땐 신랑 각시 하더뇨	한라산 올라갈 땐 신랑 각시 하더라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서 운다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서 운다

2026
제주어 포럼 '눌'-제주어를 노래하다
제주어 노래 가사집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 행 인 김완병
발 행 일 2026. 10. 9.
주 소 제주시 동광로 23길 1, 3층
전 화 064-900-1829
전자우편 misokwon@jst.re.kr
누 리 집 www.jst.re.kr

디자인·제작 (주)이다

이 가사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자와 제주학연구센터의 동의 없이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2026 제주어 포럼 '늘'

제주어를 노래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